



## “내장산 내년부터 정읍시민에 무료개방”

성수기 10·11월에만 입장료

내년부터 정읍시민은 내장산국립공원에 들어갈 때 매표소에서 일괄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 명목의 입장료(성인 기준 3000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장사의 지선 주지스님과 신도회, 김생기 정읍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읍시민에 대해 내장산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입장하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풍 성수기로 많은 인파를 물리는 10월과 11월에는 타지역 주

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장료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지선 스님은 “내장산이 입장료 징수와 각종 개발사업 제한으로 시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내장사가 지역사회와 주민과 함께하고자 무료입장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제시대(636년)부터 이곳에 터를 닦은 내장사의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스토리텔링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를 개최해 내장사와 내장산의 진면목을 찾을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김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 운영

내년 1월 1일부터 김제시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통합돼 운영된다.

현 고속버스터미널(금호)은 지난 1981년 6월부터 운영돼 현재까지 30여년간 시민들과 애원을 함께해온 김제시의 관문이지만 이동객의 감소로 경영난에 허덕여왔다. 이에 시는 고속버스터미널 적자부적으로 인한 재정지원 요구액 증가에 따른 부담해소와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개정으로 복합 환승시설 개발 추세에 부응해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훈장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시외버스터미널 정비와 대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 고창군 (주)경북식품 3개 중소와 570억 투자 협약

고창군은 12일 군청에서 동강D&F 영농조합, 하이트목재산업㈜, (주)경북식품 등 3개 유망 중소기업과 57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동강D&F영농조합은 내년에 고수면 고창산업단지 내 6만6000㎡땅에 500억원을 들여 육가공시설을 착공한다.

하이트목재산업㈜는 내년부터 흥덕농공단지 1만3000㎡에 대나무 마루판 같은 친환경자재 생산시설을 신축한다.

(주)경북식품은 과일과 채소의 절임식품 생산시설을 갖춰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충이 기대된다.

이날 협약으로 흥덕 농공단지(23만6000㎡)는 분양이 완료됐으며, 11개 입주기업이 760명을 고용하게 됐다.

한편 고창군은 고수면 85만㎡에 고창산업단지를 오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2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새만금·금강권역 합치자”

### 군산·김제·부안+충남 서천 시군 통합 건의서 제출

#### 유효서명 4969명, 청원기준 충족… 행정 절차 본격화

군산지역 사회단체가 군산과 김제·부안 등 새만금 권역과 인근의 충남 서천군과의 통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건의서는 전북도를 경유해 조만간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최근 군산지역 사회단체에서 주도한 통합서명부를 최종적

50분의 1(4239명)을 충족한 것이다. 이 서명은 연말 앞으로 전북도를 경유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통합 주민건의 서명운동은 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금강권 통합준비위원회’의 주도로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개됐다.

통합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새만금의 성공적인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군산, 김제, 부안, 서천 등 4개 시·군의 통합이 절실히”고 호소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심의회 의결에

따라 다음주 중에 건의서를 전북도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도에서는 의

건의서를 접수해 행정체제 개편추진위에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정체제개편위는 접수된 건의서를 반영해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군의회 의정청취, 주민 투표 등을 통해 오는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제시와 부안군이 군산시와 통합에 부정적 입장은 보이는 데

다 서천군 역시 일부 군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군산과의 통합을 찬성하고 있어 통합이 될지는 미지수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희망 산타원정대 출범

지난 10일 전주시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열린 ‘희망 산타원정대’ 출범식에서 산타분장을 한 봉사대원들이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 어린이재단 전북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산타원정대 300명이 참여했다.

#### 뉴스 브리핑

##### 道농기원 자체개발 화훼 10품종 충자원 출원

전북도 농업기술원은 올 한해 자체개발한 화훼 10품종을 내년 초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한 품종은 ▲화단용 나리(백합) 2품종 ▲기호성이 높은 스프레이 국화 3품종 ▲흰 가루방에 강한 안개초 1품종 ▲향기가 있는 스타티스 1품종 등

##### 김제시 ‘교동·월촌동’→‘교월동’으로 개명

13년동안 사용해온 김제시 ‘교동월촌동’ 명칭이 이달 중순부터 ‘교월동’(校月洞)으로 바뀐다.

김제시는 동명칭이 길고 복잡해 부르기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주민여론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설문조사와 조례안 입

법 예고 등을 거쳤다. 이어 김제시 의회는 ‘교월동’으로 변경하는 ‘김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

장 정수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 개명은 주민 설문조사에서 1782세대가 참여해 91%(1683세대)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 ‘남원 1박2일’ 스마트폰 앱 구축 서비스

남원시는 도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남원 1박2일’ 스마트폰 앱을 출시해 12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남원 1박2일’ 스마트폰 앱은 관광지, 축제, 체험, 농·특산품, 맛집, 숙박정보, 교통정보 등 남원 관광콘텐츠와 ‘자리산돌레길’ 정보를 세세하게 담아 여행경로는 물론 주변 정보도 함께 검색할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내장 단풍 명품화’ 학술용역 보고회

정읍시는 최근 본관 2층 영상 회의실에서 ‘내장 단풍의 명품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내장산 자생 단풍나무의 DNA 정보를 미국 NCBI(미국 국립 생물정보센터)

에 등록해 전 세계에 공개하고, 내장산에서 자생하는 단풍나무 모수 지정과 분포도를 조사해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온 김제시와 함께 협력해온

한편 남원시는 지난 3~4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공모를 실시, 고려대 ‘도아모아 아트’ 등 4개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 전북대 순창분원 생명공학과 신입생 40명 모집

전북대 생생교육원 순창분원은 2012년도 식품생명공학과 신입생 40명을 모집한다. 전국의 고교 졸업예정자나 동등 자격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원서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순창분원, 군 장류식품사업소에서 신입생 모집과 함께 투표를 보전신청을 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접수된 소청을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분원에 제출하면 된다.

2007년 문을 연 순창분원에는 106명이 재학 중이며, 전북대 교수들이 매일 저녁 식품생명공학에 대해 강의한다.

순창분원은 장류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군민에게는 학사 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96표차’ 순창군수 재선거 16일 재검표

재검표 결과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당선무효 소청에 대한 선관위의 최종 결정은 재검표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수일 이내에 내려진다.

전체 2만4827명 가운데 1만7738명이 투표해 71.4%의 투표율을 기록한 순창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황숙주 후보는 8782표(50.27%)를 얻어 이

후보를 불과 96표(0.55%) 차로 이겼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지난달 “당선자와 표 차이가 100표가 안돼 정밀한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당선무효 소청과 함께 투표를 보전신청을 냈다.

전체 2만4827명 가운데 1만7738명이 투표해 71.4%의 투표율을 기록한 순창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황숙주 후보는 8782표(50.27%)를 얻어 이

후보를 불과 96표(0.55%) 차로 이겼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지난달 “당선자와 표 차이가 100표가 안돼 정밀한 재

검표가 필요하다”며 당선무효 소청과 함께 투표를 보전신청을 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접수된 소청을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장지사 앞 유지빌딩 501

##### 서구 세하동 일반주거지역

서구 세하동 동화마을 부근·전 2차선 도로집합 1,035㎡(313평)(도로 77평포함). 매매가 4억 2000만원. 식당·사무실·기타·적합

##### 건물매매(용봉지구)

• 북구 신안동 용봉지구 옆 대지367㎡(111평) 3층, 건물3층 598.8㎡(181평) 매매가 4억 9000만원, 보증금 6000만원 월30만원.

• 북구 오치동 오치주공앞 대로변 대지298㎡(90평). 건물5층 875㎡(265평).

매매가 9억 9000만원. 보증금 8200만원 월620만원. 상권여호.

##### 소태동 잡종지매매.

• 동구 소태동 대야아파트 부근 .집증지.627㎡(190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복개된 국유지 구거 약 70평 별도 이용가능.

##### 완도 독섬 매매.

• 완도군 금일면 독섬 매매 .면적 : 198.184㎡(59.950평). 매매가 평당 750만원, 지하수 1층(100평) 평당 1000만원, 지하수 2층(100평) 평당 1500만원, 지하수 3층(100평) 평당 2000만원.

• 완도군 대야면 대야1동 197㎡(59평) 평당 1500만원, 지하수 1층(100평) 평당 2000만원, 지하수 2층(100평) 평당 2500만원.

#####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2,040평). 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함. 매매가 3.3㎡당 16만원.

#####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 분양면적 : 106평 -보증금 5천만원/월 650만원 -용5억포함 -매매가 15억 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및 충주군 받습니다. 일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려겠습니다.

\* 아무래나 전화 주십시오★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 가은 부동산

##### 일곡동 토지 매매 최고 “병원” 부지

-대지면적:980평 -매매금액:45억원 -용자금액:20억원포함 한의원/치과전문병원등

</div